

연중 제12주일

제 1독서 : 슘 38, 1.8-11

제 2독서 : 2고린 5, 14-17

특 음 : 마르 4, 35-41

순정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2고린 5, 17a)

강론

소리

잠자리에 베개 하나 더

경규봉 신부 / 해성학교 종교교감

어떤 신부님은 늘 잠자리 옆에 베개 하나와 이부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주무신다. 이 빈 잠자리는 예수님의 잠자리이고 늘 예수님을 피부로 느끼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잔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받아들이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심지어 내가 아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배에 물이 가득차게 되어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을 원망하며 투덜거린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 놓는 것이다. “내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옆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한가지 믿음만은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우리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만 살려고 아우성치던 제자들, 것처럼 이기적이고 신앙이 없었던 그 제자들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살고 전하는 참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자.

부모의 책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턴 법정은 학교수업을 59일간 빼먹은 8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에게 1백일 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담당판사는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자녀가 학교수업을 빼먹고 그 결과 탈선하게 된다면 의무교육조차 외면하는 부모를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학생이 4시간 이상 무단결강하면 경찰서장이 부모와 학생을 호출해 특수반으로 보내는데 이 특수교육에 불참하면 곧장 감옥으로 보낸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관하지 않고 부모들의 훈육태만을 엄중히 문책, 자녀교육의 근본을 되살리려는 강력조치로 대부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학생들의 가방을 조사했더니 ‘TV 고교학습’이라고 위장된 음란 비디오테이프가 발견돼 교수들을 까무러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소년 범죄가 5년세 4배 이상 급증하고 전체 성범죄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남녀 고교생 4명 중 3명이 음란 비디오를 시청했고 그 중 1명은 본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YMCA등의 조사에선 음란 비디오와 폭력물 비디오를 처음 시청한 곳은 ‘집’이라고 응답했다. 부모들의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도록 입법강화를 한다면 사회경직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대 여론이 일런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

순정이 산책



하느님과의 대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1994년 6월18일~26일)

1. 북한교회를 기억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일치는 상대방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관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교회는 분단 당시 약 5만명의 신자수를 헤아렸으나 1949년 5월에 덕원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원산교구장인 신 보니파시오 주교가 북한공산정권에 체포되고, 곧이어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마저 피납된 후 신부들이 차례로 체포되어 6.25 전에 이미 목자없는 침묵의 교회로 변해 버렸으며, 1950년 말에는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족방문으로 북한을 다녀온 교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남모르게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교령의 신자들이 상당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성직자의 방북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9회에 이르며, 바티칸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하였던 장 익 신부의 대북접촉 직후 북한에서도 바티칸과의 관계개선 모색 등을 염두에 두면서 1988년 6월 30일에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결성하였고, 동년 9월 말에 평양 장충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신앙을 간직해온 신자들이 장충성당에 찾아갈 수 있을만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현실을 아닙니다.

2. 북한선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북한선교는 직접적으로 선교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북한선교위원회는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운동과 계몽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선교의 차원에서 북한신자들에게 성서와 성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연변지역 조선족 사제양성과 공소건립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1985년에 발족된 북한선교위원회의 후원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구현해 나가는 데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 액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는 일치의 성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화해와 일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분열된 20세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제외한 온 인류사회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평양의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북한신자들

허물고 새로운 화해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도 조금씩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도 우리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4. 9일 기도를 바칩시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기도가 사라져가는 신앙생활은 사막과 같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회가 분단을 극복하여 진정한 화해와 일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두 9일 기도(6.18~26)에 동참합시다.

6월 18일부터 시작한 9일 기도가 끝맺음되는 6월 26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다음과 같은 특별 지향을 모아봅시다.

* 한국교회와 신자들 모두가 분단된 민족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실현시키는 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북한동포와 북한교회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형제적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도합시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과 특히 북한선교를 위해 온갖 희생을 바쳐온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에게 참된 지혜와 사랑의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파깨주부
최학만(바로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 254-7928~9
FAX (0652) 254-2931

다사랑 미용실

퍼머 전문점

최규팔(스테파노)
공계자(스테파니아)
삼천동 효문국교 정문 앞
쌍용아파트 앞
☎ 225-3224

할티생수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 222-7415
이리(0653) 52-5595
군산(0654) 64-4481

리틀핸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수(에밀리오)
김경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 223-6422

교리상식 ②

예수 성심 성월 ②

성심의 발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요한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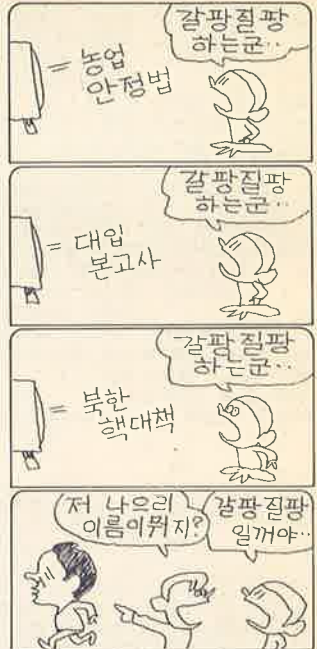
사랑의 사도 성 요한의 말씀의 깊은 뜻에 따라 시작된 성심 공경은 13세기 독일 신비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점차 보급되고,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이 1673~1675년 사이에 여러 차례 성심의 발현을 본 후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녀에게 발현하시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다음 주 금요일을 예수 성심 축일로 정하고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와 성시간을 지키도록 부탁하셨다. 1856년 교황 비오 9세는 전체 교회에 성심 공경을 지시하고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899년 교황 레오 13세는 전세계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였고 1969년부터는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축일을 성체와 성혈 대축일 다음 주 금요일로 지정하고 대축일로 등급을 올렸다. 예수 성심 초창 기도문은 성서 말씀을 부가시킨 값진 기도문이다.

교구 소식

- 1. 축! 건진 : 6월24일(금) 오전10시30분 성심학교, 6월25일(토) 오후3시 노송동 성당, 6월26일(일) 오전10시30분 주현동 성당
 - 2. 사제 인사 발령 : 박종상 신부(교포사목→요양), 성태수 신부(신평주임→교포사목), 나춘성 신부(교포사목대기→신평주임 직무대리), 장상호 신부(오룡동 보좌→복자 보좌), 김봉술 신부(중앙 보좌→오룡동 보좌)
 - 3. 사무장, 사무원 연수 : 6월21일~22일 오후3시 친초 피정의 집
 - 4. 초등부 여름 연수 : 6월23일~24일 오전10시 나바위 피정의 집
 - 5. 중·고 여름 연수 : 6월25일~27일 오전10시 나바위 피정의 집
 - 6. 천호 피정 안내 : 6월23일(목) 주제-하느님의 뜻과 서로의 사랑, 강사-이종대 신부, 6월25일~26일 주제-현대 가정의 위기와 구원, 강사-유영봉 신부, 문의 73-6600
 - 7. 하나회 미사 및 월례모임 : 6월26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 8. 종교음악 연구회 정기교육 : 6월20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4층
 - 9. 베델성서 수강자 피정 : 6월26일(일)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당, 문의 (0652)85-2935
 - 10. 의사 부부 피정 : 7월3일(일) 오전10시30분~오후4시 치명자산 성당, 지도-범석규 신부, 문의 (0652)83-3113
 - 11.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6월24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한봉섭 신부
 - 12. 주부대학 : 6월25일(토) 오전10시 주제-골다공증, 강사-한득수 교수, 장소-화산동 성당
 - 13.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6월2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14. 여성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 : 6월28일~30일 나바위 성당 교육관, 강사-이병호 주교, 양상렬 회장, 대상-교구임원, 여성부장
- ※ 축! 영명 : 21일(성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24일(성요한세자) 김봉희, 왕수혜, 한기오, 김요안, 양석현, 정성만 신부님

요심이 김병오 (1086)



베델성서 수강자 1일 피정

베델성서를 수강한 교우들이 지도신부님을 모시고 1일 피정을 갖고자 하오니 수강 교우께서는 부부동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6월26일(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지도 : 범석규(마티아) 신부
- 회비 : 5,000원
- 신청 : 85-2935(평협 간사)

의사부부피정 초청

가정의 해를 맞아 의사부부 피정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7월3일 10시30분~후 4시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지도 : 범석규 신부
- 연락처 : (0652)83-3113
- 전북의사회회장 이종두 백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도)
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8)

인체의 필요한 수분을 물 형태로만 섭취하지 말고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자연에서 가장 깨끗이 정화된 물을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졸 이상의 미혼여성
· 때 : 6월26일 오후 2시~5시
· 곳 : 삼랑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 신구약 성서

순교자 이 루갈다 물고상(십자가) 고산 성당 제작 판매
· 대 - 13,000원
· 소 - 7,000원
· 판매처 - 고산 성당
☎ (0652)71-4171

치당 김규완 작품전
김규완(그레고리오)선생님은 효자우전성당 사목회 고문이시며 현재 완산고등학교교장입니다.
· 일시 : 6월24일~30일(7일간)
· 장소 : 전라북도 예술회관 2층 (1,4실) 전시실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2주일
 -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성령기도회 임원: 회장-안환운(소화대레사)
부회장-박상규(방지기) 정옥순(유리안나)
총무-윤경자(베로니카)
회계-최금숙(안셀라)
 - 2. 축! 견진: 25일, 후 3시
* 대부 대모님과 함께 2시30분까지 입장하세요.
 - 3. 견진교리: 21~24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 4. 전입을 환영합니다.
· 송의상(바오로) - 동진2반 ☎85-8288
· 심만수(무수) - 남노6반 ☎83-1511
· 박선희(사라) - 인후1반 ☎85-5884
 - 5. 모임: ①대견회(19일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1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 천사의 모후-26일 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26일 후 2시
 - 6. 다음주일(26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북한교회의 제진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7. 금주 청소: 인후1,2반
차주 청소: 인후3,4반
- ☐ 지난주 봉헌금: 1,224,930원 ☐ 교무금: 824,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1. 축! 환영합니다. 장상호 시몬 보좌 신부님
17일 부인 환영식: 주일 공식미사 후
 - 2. 복자레저도 모든 단원 교육(모든 단원 꼭 참석바랍니다)
일시-21일(화) 오전 9:30-12시, 장소-성당
 - 3. 지나간 '매일미사'책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4. 초등부 교리교사 여름연수: 23~24일(나바위 피정의 집)
 - 5. 중·고등부 교리교사 여름연수: 25~27일(나바위 피정의 집)
 - 6.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 7. ME모임: 24일(금) 오후 7:30
 - 8. 병자 봉성체: 24일(금) 오후 2시
 - 9. 유아 세례: 25일(토) 오후 7시
 - 10. 빈첸시오회: 25일(토) 오전 10시
* 축! 길훈: 25일(토) 오후 5시
- 신랑-분행주씨 2남 현성(니고니오) 군
신부-심광수씨 2녀 인자양
- 11. 성당 청소: 25일(토) 평화의 모후Pr, 사랑하움 어머니Pr
 - 12.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씨
독서-강기인 씨 부부, 봉헌-김영기씨 가족
 - 13.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씨
독서-강주호 씨 부부, 봉헌-송민정 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581,050원 ☐ 교무금: 812,4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1. 모임: ①울뜨레아-25일(토) 저녁
②성모회-다음주일
 - 2. 유아 영세: 다음주일 오전 9시, 사무실에 신청
 - 3.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
 - 4. 요셉회 성지순례: 21일(화) 오전 8시, 공주 황새바위, 부어
 - 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26일까지
 - 6. 금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 7. 차주 청소: 바다의 벨Pr
 - 8.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우경숙
봉헌-황상호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김금자
봉헌-김중석 씨 부부
-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AΩ(알파, 오메가): 회람어 첫 글자(A: 알파)와 끝 글자(Ω: 오메가)로 그리스도께서 세계와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지배한다는 뜻을 암시한다.
- ☐ 지난주 봉헌금: 342,000원 ☐ 교무금: 16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12주일!
 - 1. 공식미사 시간 변경: 7월3일(주일)부터 공식미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성모회: 6월19일(오늘) 공식미사 후
 - 3. 반잔회: 6월26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 여름연수: 6월23일(목)~6월24일(금) 장소-나바위
 - 5.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홍순무(바오로), 진병구(비오) 2명-각 50만원, 익명 1명-50만원. 홍순옥(시몬)-20만원, 익명 1명-10만원, 최중기(요셉)-5만원, 27 A반-5만원, 익명 2명-각 5만원. *계-2백만원. * 6월12일 현재 2백십6세대 신입
- *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갑니다. 미신입하신 분들 신입바라며, 신입하신 분들은 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지난주 봉헌금: 934,600원 ☐ 교무금: 1,067,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축! 주임신부님 영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 금주: ①주임신부님 영명 축하식(공식미사 후)
②분·보스코회 피정(백석 공소)
③바비의 성모Cu(후 2시)
④청년회(후 8시)
 - 2. 성화회: 20일(월) 오후 6시
 - 3. 성모회: 21일(화) 오전 11시
 - 4. 사무장, 사무원 교구 연수: 21일~22일(천호 피정의 집)
 - 5.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교사 연수: 23일~24일(나바위 교육관)
 - 6. 성지회: 24일(금) 오후 8시
 - 7. 중·고 여름연수: 25일~27일(나바위 교육관)
 - 8. 차주: 성마리아Co(후 2시)
 - 9. 사수철(신학생 후원) 페지 저금통 봉헌바랍니다.
 - 10. 감사합니다(성당 앰블시설 헌금)
조기행(엘리사벳)-일십만원, 이현순(유리안나)-일십만원
방길례(세실리아)-일십만원, 김정수(미카엘라)-일십만원
유태안(안나)-오십만원, 김기숙(테레사)-오십만원
윤영자(바실라)-일백만원, 안숙자(글라라)-오백만원
김인준(첼마)-일백만원, 김광순(테레사)-일백만원
송은조(아네스)-일십만원, 정순조(무치아)-일십만원
- ☐ 지난주 봉헌금: 1,955,08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상근

-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6일 9일기도
 - 1. 핑스도 강론: 오늘 매 미사 김준권(안드레아) 형제
 - 2.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0일 전 10시30분 센터 3층
 - 3. 초등부 교사 여름연수: 23~24일 나바위, 센터 8시 출발
 - 4. 중·고 교사 여름연수: 25~27일 나바위, 센터 9시 출발
 - 5. 중·고생 여름 교리교재 신청: 빛따라 "복음화는 가정교회로부터" 900원 부모님께서 신청하시어 자녀들 손에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6. 사무장, 사무원 연수: 21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 7. 회의: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임마누엘-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22일 어머니미사 후
울뜨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8. 성소 후원금 납부의 날: 공식미사 후 월례회(성소후원회) 기타 미사에 오시는 분께서는 사무실에 회비 납부
 - 9. 초·중·고 교리교사 모총 모집: 7월3일까지 뜻있는 젊은이는 본당신부님 면접하시기 바랍니다.
 - 10. 성요한 세자 탄생 대축일: 24일 저녁 7시30분 특별강론
* 특수 구리 건강 팔찌(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류마티즘) 부모에게 효도선물 값 55,000원 2개를 착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080,500원 ☐ 교무금: 705,000원